

제자됨의 증거

2010년 10월 31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9:1-6

(눅 9:1, 개역)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눅 9:2, 개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눅 9:3, 개역)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눅 9:4, 개역)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눅 9:5, 개역)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눅 9:6, 개역)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훌쩍 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 봤지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곧 예수님 본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마저 훌쩍 떠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디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글이나 편지로 남겨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도록 일하게 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17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육적인 달성을 위하여 기적을 노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취하십니다. 그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벨과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목숨을 일찍 취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목숨을 교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어주는 일입니다.

즉 인간들의 육적인 목숨을 하나님은 강탈하시고 그 자리에다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식으로 구원해내십니다. 달리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생명나무의 효과로 구원시켜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결코 위대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도 남들 하는 것 다 해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이란, 선악과 성질만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 성질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떠나는 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경과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이 단순히 약장사처럼 지식이나 팔아먹고 신학이나 팔아먹는 말장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한평생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째, 여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정된 거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착의 의지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 제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은 곧 그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간주할 것이냐의 여부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상 통과 모습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정착 의지는 곧 소유 의지로 이어지고 소유 의지에서 소위 ‘역사’라는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각자의 ‘역사’를 인정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이지 자기만의 찬란한 이력이나 경력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역사가 곧장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리게 되는 결과로 전환됩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 능력 안에서는 자신의 생존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능력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발산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부의 소유에서는 나오는 생존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째로, 제자는 사람을 설득해서 건져 내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가 아니라 심판해서 세상의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지를 세상에게로 돌려주고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먼지 하나라도 제자의 운명과 무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꾸미는 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여자들이 밖에 외출 할 때 버릇처럼 화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가릴 만한 것들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자신을 가렸던 그 모든 것을 압수해 버립니다. 아무 것도 가리지 아니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생만이 나오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목회나 축구선수들

이 축구 시합이나 정치인들이 출만 선언이나 모두 자신을 가리기 위해 수작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림에서 나온 것들은 세상에서 정착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백성들을 몰고 갈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이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약속이 전부 완료된 땅이어야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결국 신앙의 선조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나무에 기초한 약속이 없이 인간의 선악적인 윤리관으로 무장한 자들은 이 땅 전체를 완벽하게 율법으로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기를 위해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이나 그들에게 돈 갖다주는 자들이나 모두 정신 병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오신 것은 그 율법적 작업에 구멍을 뚫기 위함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방금 콘크리트 작업을 마쳐서 시멘트가 전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이가 쇠 꼬챙이를 가지고 타설한 곳을 꺾꺾 찢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에 구멍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작업한 쪽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파괴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한 세상을 멸망한다고 하니 도저히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 안에서 제자들이나 성도는 더 이상 법이 주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이 땅에 정착시킬 장비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 곧 제자들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에 근거해서 주신 이 자유를 율법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49강-눅9장1-6제자됨의증거-luk101031.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49강-눅9장1-6제자됨의증거-luk101031.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49강-눅9장1-6제자됨의증거-luk101031.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49강-눅9장1-6제자됨의증거-luk101031.pdf>

049장-눅9장1-6(제자됨의 증거)-luk101031-(이 근호목사)

2010-11-03 17:18:22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1-6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슨 수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보느냐, ‘빛이 어두움에 왔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인줄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어둡다, 더럽다고 하니까 ‘아하, 더럽구나. 그리고 안 더러운 것은 예수님의 세계밖에 없구나.’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두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수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10시 반쯤 되어서 창밖으로 보니까 수백의 인파가 팔공산 쪽으로 죽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족 혹은 부부가 걷기대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 묻고 싶지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팔공산에 계신다면 팔공산에 가지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주님이 팔공산에도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주님이 없다 그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구 그랜드 호텔에 묵고 계신다 하면 거기에 가면 되지요. 청와대에 계신다 하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교회에도 당연히 안계시죠. 특정 교회에 계신다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면 되지만 거기에도 없어요. 누굴 만날 때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다면 찾아가든지, 어느 찻집에서 약속 잡고 만나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 없다 이 말이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대책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열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가버리시고 그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제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를 봐주시네요.

사도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편지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말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라고 서비스정신이 놀라워요. 예수 찾아다니는 이 수고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를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다 헛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준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다면 결국 없는 게 아닌가. 사도들이 절을 세웠거나 교회를 세웠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별 대책이 없지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떠나면서 사도들만 해야 될, 다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도 사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뒷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도의 편지 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 노림수, 탐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니까, 취직도 잘 안되지요, 결혼도 잘 안되지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 뒤틀리니까 하나님과 동업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에게 자기 잘남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떡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밥 퍼주는 사랑’ 그런 것 있잖아요. ‘노인 돌봅니다.’ 그런 것,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들이죠. 대구 영양에 가니까 ○양 교회라고 있던데 색소폰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색소폰, 전자기타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골프 배운다는 것도 나올 겁니다. ‘노래방 공짜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자는 그저 약장사 같은 말쟁이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아예 판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어요. 늦게 오셔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게 누가 누구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어부가 되기는 되는데 무슨 어부가 되느냐하면, 오징어나 꽃게나 고등어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일종의 낚시를 하러 오신 분입니다. 낚이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낚이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냥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는데, 예수님이 떠나 버리게 되면 말씀만 남거든요. 말씀만 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일 잘 안 풀린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결혼, 취직 등의 일로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조건하에 반대급부로,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은근한 노림수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다는 말은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꼭 편지에 집어넣어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의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는 천국에 못갑니다.’ 분명히 다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똑똑한 것을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세상 모든 지혜를 꿰뚫고 싶은 그런 것을 원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숨겨져 있는 지혜,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지혜, 성령께서 친절하게 우리 속에 집어 넣어줘야 비로소 아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피입니다.’(고전 1장, 2장)

이 복음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롬 10:9) 합니다. 이것을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나왔지만 세상 최초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하면, 아벨을 멸절한 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벨의 생명을 취합니다.

생명을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확실히 너하고 나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확정지어놓고 형에게 맞아죽는 식으로 생명을 취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이유가 생명을 취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기존의 생명과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육에서 나온 혈육적인 목숨은 하늘나라에 갈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혈육에서 나오는 이 목숨이 가만있지를 않아요. 이 혈육에서 나온 목숨이 자꾸 ‘세상 것 부럽다, 달라, 달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채워 줄 수는 있어요.

주께서 이런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는 식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채워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채워줘도 질이 안 바뀌는데요. 인간이 자기 목숨을 애 닦아하는 이 성질이 바뀌지를 않는데요. 교체가 되어야 한다니깐요. 교회는 ‘죽으십시오.’라고 외쳐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받아봤자 쓰레기입니다. 어제도 교회에 와 보니까 쥐가 끈끈이에 붙어서 죽어 있어요. 그 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뭐가 좋다고 거기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갖다 버렸다고요. 우리의 목숨, 이 세상자체가 주께서 버릴 것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세상은 먼지로 쌓여 있는데 먼지는 그냥 먼지에요. 먼지는 털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결별이다. 제자들이 노는 동네는 너희들이 좋다, 하는 이 세상과 결별이야.’ 하는 뜻에서 어디를 가거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먼지가 저쪽에서 쌓이게 해야지 이쪽에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삶 전체를 보여줘서 그냥 의식적으로만 먼지를 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의 모든 것을 다 털는 거예요. 사람들이 혈육적인 욕신을 갖고 있으면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남, 들, 하, 는, 것, 다, 하, 면, 서, 그, 저, 평, 범, 하, 게, 살, 고, 싶, 다.’ 딱 19글자네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결국 이거 하나 남아요. 그저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평범하고 살고 싶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싶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집사도 싫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그저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뒀! 이 나이에 무슨 교회봉사를 하리, 그냥 내버려 뒀, 평범하게 살고파.’

아주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것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우리의 욕신, 거기에 마귀가 함께 있어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고 이리 잡아채고 저리 잡아채면서 제발 천국가지 말라고, 천국 쪽으로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생기는 마음이 ‘그래, 내가 무슨 별 뽀족한 재주가 있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말지.’ 하면서 사명 없이 그냥 주저앉는 마음이 있어요.

『시편안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다 써서 교정 넘겼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들은 전부 다 정신병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정신병자냐, 자기에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뭐든지 정신병입니다. 도박도 정신병이요, 마리화나 피우는 것도 정신병이요, 술에 찌는 것도 다 정신병입니다.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이런 것은 다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자기 일생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정신병원에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들은 자살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살하다시피 살지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래요. 아예 태생이 그래요. 타고난 바가 내 인생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제자들도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자기 부모아래서 태어났고 다 육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누가 동행해서 그렇게 하게 했던가, 예수님이 동행했기에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던 것이 귀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과 결별했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상인줄 알았어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것이 정상인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떴다 하는 그 순간에 줄지에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어두움 속에서 그냥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으로 나와서 그냥 정신병자 된 거예요. 자기 밖에 모르는, 농사를 지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고치기는 뭘 고쳐요. 아벨처럼 목숨을 교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목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으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어다오. 고마운 줄 안다면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간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가 와서 너를 데려간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구원받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정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착이 되면 정신병이 도집니다. 내가 정착한 이 자리 때려죽어도 못 잊고 못 내놓는다고 버티는 거니까 주님께서서는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노래로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유행가인줄 예상했겠지만 그 예상 맞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 과정이 예수님 홀로 가야 될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여정인데 황공스럽게도 제자들이 졸졸 뒤따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사실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낯선 곳이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늘 물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라갔지만 이것이 구약에서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여,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른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 약속의 나라, 거기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약속이 약속대로 다 완료된 나라, 약속이 그 내용대로 다 성취된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의 나라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땅에 도착해서는 그것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어요. 도착해 보니까 약속이 아직 미진한 채 완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왔었는데 와 보니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 말이지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할까요? 교회 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교회 다녀보니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와 보니까 목사는 교회 키우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영혼걱정, 구원걱정을 안하는 거예요. 왜, 목사 자신부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목사가 신학교 갈 때부터 교회라는 업종을 선택했고 교회를 통해서 평생 밥 먹고 살고자 목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부터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비운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성경 안봅니다. 초대교회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했습니다. 부흥되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돈이 생기고 하나는 권력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빌빌대다가 교회 와서 장로쯤 되고 나니까 그게 무슨 권력인줄 알고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 기독교교단에서 세운 사립재단의 경우는 기존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면 직급을 못 받아요. 교장, 교감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오늘 점심메뉴가 뭔지 교회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교회가 맛있는 곳인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 떠나자.’가 없고 ‘모든 것을 비우자.’가 거기에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의 정착지가 되고 말았고 정착하게 되면 그 교회에 맹신하면서 교회도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그 교회를 키우는데 정신병자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부터 해서 그 전체가 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기존교회 장로들이 기도할 때 ‘당회부터 어린 주일학교까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정신병자입니다. 교회가 구원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될 곳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지 지식 쟁이, 수단쟁이를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슬슬 이사 갈 채비, ‘여기 아니구나.’ 하고 이사준비를 해야 돼요. 또 집구석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갈 데 없다는 핑계 대고 다 자기 집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뭔가 이곳이 아닌, 내 집구석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곳, 정신병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질 낮은 더러운 내 목숨과 예수님 생명을 갈아치우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생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보 뒤에 나오는 요약을 봅시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설교는 20년째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정된 거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착의 의지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 제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은 곧 그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간주할 것이냐의 여부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상 통과 모습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정착 의지는 곧 소유 의지로 이어지고 소유 의지에서 소위 ‘역사’라는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각자의 ‘역사’를 인정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이지 자기만의 찬란한 이력이나 경력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역사가 곧장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리게 되는 결과로 전환됩니다.”

첫째, 여행을 해야 인간의 소유의식이 날아가고 역사가 깨진다. 본문에 보면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가지면 거기서 역사가 생기고 그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다.’ 하는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 능력 안에서는 자신의 생존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능력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발산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부의 소유에서는 나오는 생존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죄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의 싹, 자랑의 싹을 잘라버리면 생명을 준다. “셋째로, 제자는 사람을 설득해서 건져 내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가 아니라 심판해서 세상의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지를 세상에게로 돌려주고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먼저 하나라도 제자의 운명과 무관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게 뭐냐? 생명주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나무과실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생명의 그 본체가 안 드러나요. 생명나무 과일이 무슨 성질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명나무 쪽에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양쪽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는 못 따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처음 알았지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게 기적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일어난 기적이 뭐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기적이예요. 지금은 옷 안 입는 것이 비정상이고 옷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99.99퍼센트의 인간이 다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옷 입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모세의 글을 보세요. 원래 인간은 벌거벗게 되어 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었어요. 나중에 소급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부부간에 벌거벗어놓고 부끄럽다 하면 그 부부사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아닐 수가 있어

요. 한 몸이 되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보든지 누굴 보든지 대외적으로 아랫도리의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느끼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행동입니다. 동고청장 때려치우고 국회의원 나온다. ‘왜 나오십니까?’ ‘대구 동구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함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나옵니다.’

‘열심히 사법시험 준비 중입니다.’ ‘왜 판사 되려고 합니까?’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니, 당신의 사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 ‘나는 정상이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강제로 내 수치를 벗겨내려고 한다면 어떤 인간도 참을 인간이 없습니다. 아주 발악을 다해요.

‘아니 되웁니다.’ 하고 온갖 발악을 다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 주님께서 강제로 자기들의 걸치고 있는 것을 확 빼앗아 갑니다. 빼앗기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발가벗음이 드러나지요.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돌 곳도 없었고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왔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부끄러우냐? 아무것도 없는 스승을 모시는 너희들이 수치스러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배운 것은 있어서 말이야 잘하지요. 나중에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과 3년이나 인생 허비해서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누가 어떤 식으로 놀린다고 해도 주와 함께 있는 그 공간만은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여인아, 네가 간음했나?’ ‘간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난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사이에요. 영화에 보면 조선시대에 어린 신랑신부가 첫날밤 치를 때 문밖에 있던 아낙들이 문창호지 다 뜯어 놓고 보잖아요. 그것이 부끄럽지요. 먼저 결혼한 여자들이 이런 부끄러움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쪽의 신랑신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성경, 율법만 법이 아니에요. 세상 나갔다 하면 모든 것이 법입니다. 빨간불은 서시고 파란불은 가시고, 모든 것이 금지고 제제입니다. 거기에서 저촉되면 범법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간을 다루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가리고 또 가려도 선악과 안에서는 더러운 생명이다. 선악과 따먹고는 생명나무 못 따먹는다. 선악과 따먹고서는 너는 천국에 올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망할 인간들이 교회에서마저 없는 법도 더 만들어서 계속 그

수치스러운 것을 덧대로 화장발로 메우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들이 왜 있는가? 예수 믿고 천국가라고 사도가 있다. 그러면 사도들의 편지 속에 뭐가 있겠어요? 인간들은 이래서 그 목숨의 질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의 편지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에, 골로새서 2장에 ‘날과 달과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어요.

더 이상 법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무서운 법을 예수님께서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덧대기를 원하고 겁나하는 율법, 이 율법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에게 덮친 율법을 내가 가져와서,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 죄를 다 가져와서, 이 죄와 율법이 만나서 자 봐라. 내가 너희 대신 저주받을게.” 해서 저주받은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십자가사건이 있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고 반대로 말해서 율법으로 죄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려는 그런 사고방식,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악마의 종들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법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왜 법을 만들었느냐, 민중들은 선악과 따먹어서 아는 것이 법 밖에 없고 법으로 화장발을 더해서 그 법가지고 ‘나는 그래도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그런 행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법을 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대전강의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왔습니다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가지고 ‘네가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 하는 거예요.

‘따라와 보려면 따라와 봐! 너희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성직자계층이 하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봐. 못하면 무릎 꿇어.’ 완전히 율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해놓았어요. 완전히 굳어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짓이 뭐냐, 방금 콘크리트를 막 타설해놓았는데 쇠꼬챙이를 들고 와서 구멍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으로 완벽한 종교를 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난기로만 보이는 그 쇠꼬챙이로 쏘시는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맞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맞아죽었다고요. 복음전하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 쫓겨나갑니까? 딱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쇠꼬챙이 가지고 가는데 마다 쏘셔버려요.

구역예배 때 쏘시고 주일 오후 성경공부 때 쏘시고, 전부 퍽퍽 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법으로 구원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을 지향하는 것은 지옥 갈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고 싶지만 법이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종용히 나가라고 하지요. 전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는다.’ 세상에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데서 어떻게 깨끗함이 나오니까?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데! 십자가는 알았고 이제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본다고? 이 육신이, 그 질이 더러운데 더러운데서 무슨 의로움이 나오니까?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 먼지라는 것은 마귀가, 죄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에 결국 우리는 바싹 말라서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가지고 힘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영천에 가면 돌 할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도 본적이 있는데 최근에 돌 할머니 분점이 생겼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영천이 아니고 부산의 분점에 가도 같은 효과를 본다면 그 효과가 영천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이동한 것일까요? 고속열차 타고 이동합니까? 그것이 무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영천의 그 기운이 영천까지 이동하는지. 세 개의 소원 중에서 한 개는 들어준다는 그 유명한 갓 바위, 그 갓 바위를 백분지 1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백분지 1이 아니라 아예 그 크기 그대로 지묘동에 세우면 지묘동의 사업이 번창 할까요, 아니 될까요?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좀 들겠지요. 산길 오르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산 밑에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효과 보면 저쪽은 장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그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힘을 길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니까, 질이 더러운 놈이니까 더러운 놈이 신을 향하든, 삼위일체 예수를 향하든 어디를 가든 더러운 인간이 가는 곳은 곳마다 다 버려놓는 거예요. 다 우상 집단으로 만들어놓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우게 만들고 무산시키도록 합니다. 항상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뭔가 자꾸 떠나야 되고 그래서 두벌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되면 또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주셨지만 내일되면 또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고 모레가 되면 모레의 양식을 또 주시기에 ‘네가 따로 두벌 옷을 소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일 치를 또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몰아서 내일 치 모레 치 다 주면 안 되고 항상 그날그날 건강주십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 조강해야지.’ 하고 깨우셔서 운동하게 만들고 항상 부지런히 활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상화 되는 자기인생에 중독된 인간 만들지 않고 항상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더불어 오신 주의 영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이고 그냥 육으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 앞에 화장발 내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가리지 아니하고 ‘나 이만큼 착합니다.’ 그런 것으로 위장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 예수는 이 땅에 올 때 죄인 중에 죄수가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같이 벌거벗은 채로 가리지 말고 노출된 채로 동행하시면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기능입니다.

401번 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공항동이 있어요. 공항동에 오게 되면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특이해서 제가 발표합니다. 간판 이름이 <알콜충전>입니다. 의미 있지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 기분 좋아서 한 잔 걸치고 기분 나쁘면 더러워서 두 잔 걸치고, 어디 걸칠 데가 없나 하면 알콜 충전소에 가면 됩니다.

알콜충전을 만드는 기계,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자입니다. 동창회요? 동창의 얼굴이 그림다고? 아닙니다. 술 먹을 핑계 대는 겁니다. 혼자 마시려니 술맛이 안 나고 핑계 삼아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50대나 60대나 되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20대까지 내려갔어요. 좀 있으면 10대까지 내려갈 거예요. ‘중간시험 끝났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 잔 하자.’ 알콜충전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술기운으로 마귀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그런 식으로 가려야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인생, 주님께서 ‘네 사정 다 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리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만 내 앞에서는 다 발가벗자. 네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내가 네 대신 십자가 졌잖아. 십자가 피 흘리는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따라서 네 모습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가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여행하는 삶, 훌쩍 먼지 털고 떠나는 삶, 우리의 먼지는 세상에 돌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만큼은 주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정신병자 되었다고 그게 부러워서 정신병자 못되어서 환장해 하는 우리들, 웬 은혜인지 예수님 알려주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 말씀을 들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혜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사오니 이 자유를 남에게 증거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